

2013 프로야구 개막 D-4 … 미디어데이 9개 구단 감독의 출사표



25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한국 프로야구 9개구단의 감독과 주요 선수들이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SUN “올핸 일 저지르겠다”

김용운 “야구는 의외성 많아”

프로야구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7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설 사령탑들이 출사표를 냈다. 새내기 NC 다이노스를 포함한 프로야구 9개 구단 감독들은 25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새 시즌에 임하는 각오와 준비 상황 등을 밝혔다.

시범경기에서 5년 만에 1위를 차지한 KIA 선동열 감독은 “올해는 일 한번 저지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고, 리그 최강 삼성의 류중일 감독은 3연패 목표를 감추지 않았다.

▲선동열 KIA 감독 = 작년 한 해 부상 선수가 많아 너무 힘들었다. 올해는 원기 기분이 좋다. 선수들 부상도 없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다 보니 시범경기(1위)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올해는 일 한번 저지르겠다.

▲류중일 삼성 감독 = 우선 3연패를 목표로 하겠다.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 투수 릭 벤더월크(어깨통증으로) 시즌 초반 못 나온다는 것이다. 전력은 지난해에 비해 마이너스가 됐지만 때 게임 최선을 다하겠다.

▲이만수 SK 감독 = 이제 폴케게임을 거의 다 맞췄다. SK는 한국시리즈에 여섯 번 진출했는데 7번째라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작년에 이루지 못한 우승도 꼭 이뤄서 팬들에 보답하겠다.



선동열 KIA 감독

들 마음속에는 다 우승 목표가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 염경엽 넥센 감독 = 스프링캠프, 마무리 훈련, 시범경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다. 한 계기입을 팬들이 즐기워하고 우리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초보 감독이나 배우는 처지에서 열심히 하겠다. 팬들이 원하는 성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 맘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다. 최선 다해서 결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 김기태 LG 감독 = 이런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감독, 선수, 스태프가 함께 많은 것을 준비했다. 공·수·주 모두 준비를 많이 했다. 길갈보다는 LG 팬과 한국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큰 선물을 드리겠다.

▲ 김진우 두산 감독 = 선수들과 약속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승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선수들도 다른 때보다 우승에 대한 갈망이 크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불펜 쪽과 중심타자 쪽에 공을 많이 풀었다.

▲ 김시진 롯데 감독 = 겨우내 땅도 많이 흘리고 열심히 했다. 선수들에게 ‘내일 한 게임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 게임에 매진하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 있는 감독

들은 진해수는

그리고 북북히

프로답게

공을 던졌다.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투수를 맞는 동

료들의 손길이

더욱 애恸했던

이유다.



진해수

부친상 진해수… 고독한 마운드서 슬픔을 던지다

그라운드 Talk & 톡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기다. 마운드는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곳이자 누구도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고독한 곳이기도 하다. 공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투수들의 외로운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9승2패, KIA가 거침없는 기세로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하는 동안 고독한 마운드가 더 아득하게 느껴졌던 선수가 있었다.

지난 24일 오후 투수 진해수가 부친상을 당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의 입에서는 ‘디행이다’는 얘기가 나왔다. 부친상을 당했는데 디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

SK의 시범경기와 비로 쇄수했던 18일 진해수는 급히 고향 부산으로 달려갔다.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들은 넓은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미움을 다독이고 팀에 복귀한 진해수는 17일 두산과의 경기에 등판했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NC, LG,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마운드에 올랐다. KIA의 악점으로 꼽히는 불펜 특히 좌완 자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진해수는 그렇게 북북히

프로답게

공을 던졌다.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투수를 맞는 동

료들의 손길이

더욱 애恸했던

이유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다”고 말하던 어린 상주는 생각보다 씩씩했다. 민간 업체에까지 의뢰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10여일의 시간,

바다에서의 작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시

범경기 최종전이 열린 이날이 수색 마지

막날이었다.

전날 꿈에서 아버지를 안아 올렸다는

아들은 삼성과의 경기 시작을 앞두고 아

버지를 찾았다는 슬프지만 반기운 소식

을 듣고 한답을에 부산으로 향했다.

영양 아버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다시 가족을 품

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를 보내는 상주의

포정은 겨울 같으면서도 봄이었다.

야구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마운드에

올랐을 꿈은 선수의 심정은 그저 짐작만

해볼 뿐이었다. 치열한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의 ‘숙명’이다.

/기여율기자 wool@kwangju.co.kr

“700만 관중을 위하여”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뜨거운 열기

2년 연속 관중 700만명 돌파를 꿈꾸는 한국 프로야구가 미디어 데이에서부터 그 또 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25일 서울 광진대교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2013 한국 야구리그 세븐 프로야구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헬로 베이스볼(Hello, Baseball)’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9개 구단의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고자 400명의 팬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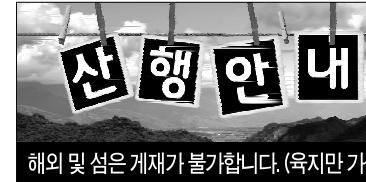
오후 1시부터는 새천년관 맞은 편 야외 잔디 무대에서 사인회와 포토타임이 마련돼 9명의 대표 선수들을 코앞에서 만나봤다.

지난해 최종 순위에 따라 삼성·SK·두산·롯데·KIA·넥센·LG·한화·NC 순으로 무대에 입장했고 팬들은 자신의 응원 티를 들어설 때마다 열띤 장과 응원 경쟁을 펼쳤다.

삼성 장원삼, SK 정근우, 두산 김선우, 롯데 조성환, KIA 서재웅, 네센 박병호, LG 봉중근, 한화 김태균, NC 이호준 등 간판 선수들은 각각 새내기인 정현, 이경재, 김인태, 송주원, 손동우, 조상우, 강승호, 조지훈, 권희동과 짜이어 팬들을 향해 인사했다.

9년 만에 현장에 돌아온 ‘우승 청부사’ 김용운 한화 감독과 KIA의 선동열 감독은 지휘봉을 잡을 때의 능숙한 모습과는 달리 무대 인사를 깜빡하고 들어가는 ‘미숙함’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팬들은 각 팀 감독들이 이를 시즌을 임하는 출사표를 던질 때 “감독님, 사랑해요”, “잘 생겼다” 등 소리를 질러 흥을 북돋웠다.

/연합뉴스



3월 27일(수)

▲ 광주청룡시민의회 3월 27일(수) 충남 광주 대회관,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체육회관, 08:10 문예회관 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3월 28일(목)

▲ 블랙아이크 40명식당방 3월 28일(목) 월 출신, 07:30 열주부당경기장, 07:40 백운동로터리

문예회관 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디음카페 블랙아이크 40명식당방

☎ 011 646-3453

3월 29일(금)

▲ 광주금수당식당 3월 29일(금)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금수당식당

☎ 011 646-3450, 011 259 0284

3월 30일(토)

▲ 광주청룡시민의회 3월 30일(토) 광주 대회관,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체육회관, 08:10 문예회관 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3월 31일(일)

▲ 광주청룡시민의회 3월 31일(일)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4월 1일(화)

▲ 광주청룡시민의회 4월 1일(화)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4월 2일(수)

▲ 광주청룡시민의회 4월 2일(수)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4월 3일(목)

▲ 광주청룡시민의회 4월 3일(목)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4월 4일(금)

▲ 광주청룡시민의회 4월 4일(금)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4월 5일(토)

▲ 광주청룡시민의회 4월 5일(토)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4월 6일(일)

▲ 광주청룡시민의회 4월 6일(일)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11 259 0284

4월 7일(화)

▲ 광주청룡시민의회 4월 7일(화) 진해 진해금수당, 07:30 진해금수당, 08:00 진해금수당

*디음카페 광주청룡시민의회

☎ 011 646-3450, 0